

韓최초 득표, 亞최초 1위표...류현진, 사이영상 새역사

류현진, 공동 아닌 단독 2위...2013년 다다르빗슈에는 못미쳐
29경기 선발 등판 182⅓이닝 소화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
지난해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주인공 '디그롭', 2년 연속 수상

2019 NL Cy Young

Player, Team	1st	2nd	3rd	4th	5th	Points
Jacob deGrom, Mets	29	1				207
Hyun-Jin Ryu, Dodgers	1	10	8	7	3	88
Max Scherzer, Nationals		8	8	6	4	72
Jack Flaherty, Cardinals		5	11	6	4	69
Stephen Strasburg, Nationals		6	1	9	8	53
Mike Soroka, Braves			1		6	9
Sonny Gray, Reds					4	4
Clayton Kershaw, Dodgers			1			3
Walker Buehler, Dodgers				1		2
Kirby Yates, Padres				1		2
Patrick Corbin, Nationals					1	1

류현진(32)이 메이저리그 사이영상은 받지 못했지만 류현진이 획득한 2위 표가 종전 6장에서 10장으로 정정되면서 단독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선수 중에서는 최다 포인트 역대 2위에 랭크됐다.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는 14일(한국시간) 2019시즌 사이영상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양대 리그 사이영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사이영상은 BBWAA 소속 기자 30명의 투표로 선정되며 기자 한 명당 1위부터 5위까지 투수 5명을 뽑는다.

내셔널리그에서는 류현진, 제이콥 디그롭(뉴욕 메츠), 맥스 슈어저(워싱턴 내셔널스)가 최종 후보 3인에 선정됐다. 류현진은 총점 88점을 얻어 단독 2위에 올랐다.

BBWAA는 당초 발표에서 류현진이 1위 표 1장, 2위 표 6장, 3위 표 8장, 4위 표 7장, 5위 표 3장으로 72점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투표에 참여한 전체 기자 실명을 공개하면서 집계 오류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BBWAA는 류현진의 2위 표 수를 정정했다.

류현진은 1위 표 1장, 2위 표 10장, 3위 표 8장, 4위 표 7장, 5위 표 3장으로 88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류현진은 슈어저(72점)를 제치고 단독 2위에 랭크됐다. 2013년 일본의 다다르빗슈 유가 기록한 아시아 선수 최다 포인트인 93점에는 못미쳤지만 이와쿠마 히사시(2013년·73점)를 넘어서며 아시아 선수 역대 최다 포인트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류현진은 아시아 선수 최초로 사이영상에서 1위 표를 획득하는 새역사를 쓰게 됐다.

1966년 사이영상이 제정된 이후 아시아 출신 선수가 이 상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2006년 대란의 왕첸밍과 2013년 일본의 다다르빗슈 유가 2위에 오른 것이 최고 성적인데 두 선수 모두 1위 표는 얻지 못했다.

류현진은 올 정규시즌 29경기에 선발 등판해 182⅓이닝을 소화하며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를 작성했다. 평균자책점은 메이저리그 전체 1위에 올랐고 29경기 선발 등판 중 10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했다. 9이닝당 볼넷은 1.18개다.



다저스의 정규시즌 개막전 선발 투수로 나섰고 5월에는 내셔널리그 이달의 투수 영예를 안았다. 생애 처음으로 빅리그 올스타에 선정돼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올스타전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오르기도 했다.

이같은 활약을 앞세운 류현진은 사이영상 최종 후보 3인에 이름을 올리면서 한국 선수 최초의 사이영상 득표자가 됐다. 또한 아시아 선수 최초로 1위 표를 얻는 새역사도 썼다.

슈어저는 1위 표 없이 2위 표 8장, 3위 표 8장, 4위 표 6장, 5위 표 4장을 받아 총 72점을 기록했다.

디그롭은 1위 표 29장, 2위 표 1장으로 총 207점을 받아 압도적인 점수 차로 사이영상의 영예를 안았다. 류현진이 디그롭의 1위 표 득표를 저지했다.

지난해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주인공

공이었던 디그롭은 2년 연속 사이영상 수상에 성공했다. 2년 연속 사이영상 수상은 역대 11번째 기록이다.

아메리칸리그에서는 저스틴 발렌더, 게릿 폴(이상 휴스턴 애스트로스), 찰리 모튼(탬파베이 레이스)이 최종 후보 3인에

오른 가운데 발렌더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발렌더는 1위 표 17장, 2위 표 13장을 받아 총점 171점을 기록, 2011년 이후 8년 만에 개인 두 번째 사이영상을 차지했다.

폴은 1위 표 13장, 2위 표 17장을 얻어 159점으로 2위에 올랐다. 발렌더와 12점 차이로 아쉽게 수상에 실패했다.

모튼은 1, 2위표는 받지 못했고 3위 표 18장, 4위 표 10장, 5위 표 1장을 얻어 75점을 기록했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